

다윗은 요나단은 친구였어요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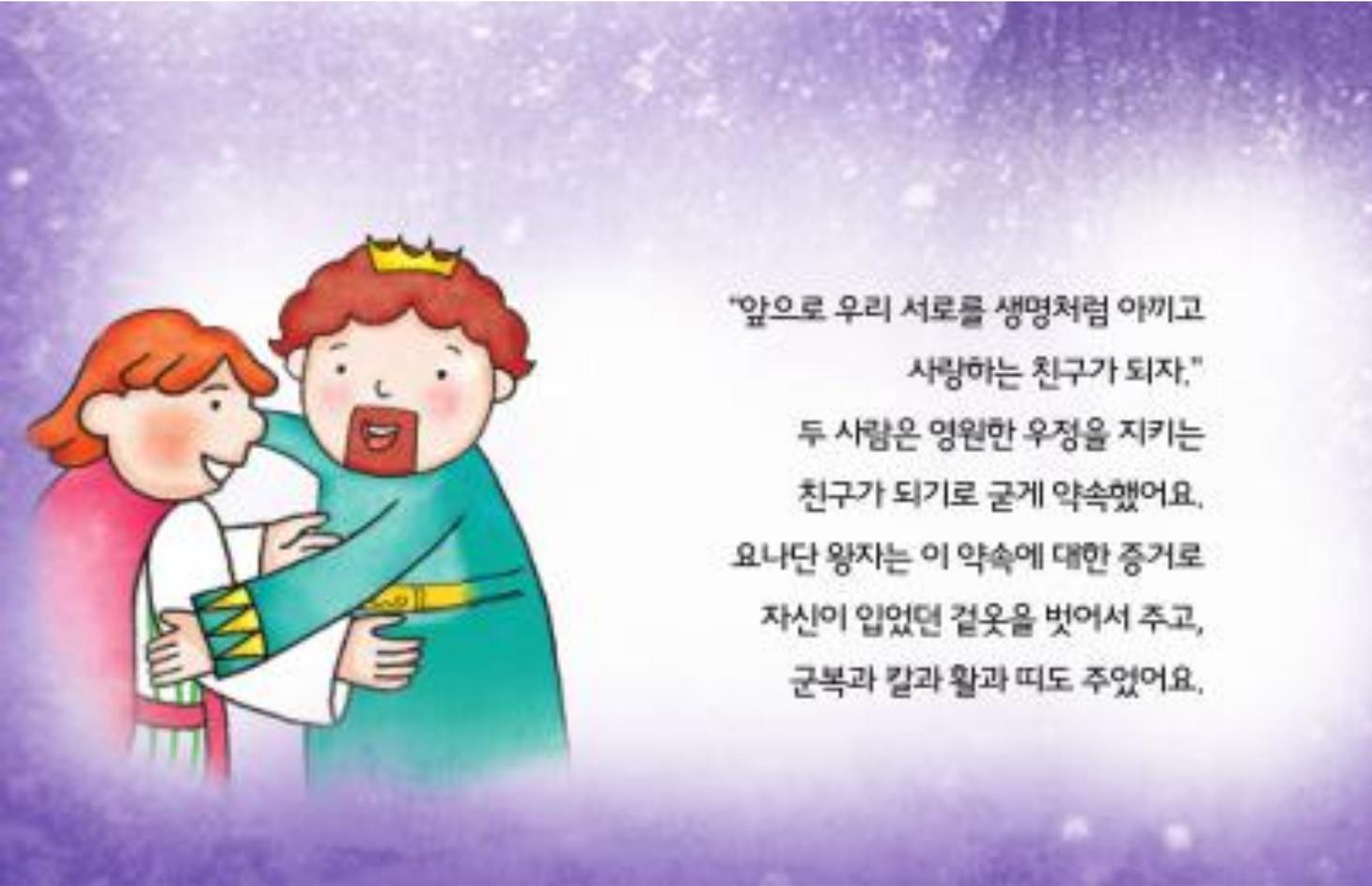


다윗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쓰던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졌어요.
“휘리릭! 휘리릭! 슈웅~퍽!”
“으아~악!~쿵!”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키고 크고
힘센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요나단 왕자는
무척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서로를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되자.”
두 사람은 영원한 우정을 지키는
친구가 되기로 굳게 약속했어요.
요나단 왕자는 이 약속에 대한 증거로
자신이 입었던 겹옷을 벗어서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의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다니!
이러다가 왕의 자리까지 빼앗기겠어.”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가 가득 찬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당장 다윗을 잡아서 죽여라!”



요나단은 다윗을 구했어요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야.
다윗이 아버지 손에 죽게 내버려둘 수 없어.”
요나단은 사울왕에게 가서 간절히 부탁했어요.
“아버지! 다윗은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제발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사울왕은 “그래, 다윗을 죽이지 않을게. 맹세하마.”라고
약속했답니다.



꼭꼭 약속해

미상요
미상곡



너하고 나는 친구되어서 사이 좋게 지내자
 싸움하면은 친구아니야 사랑하고 지내자
 맛있는것은 나눠먹으며 서로 돕고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걸 - 고 목 목 약속해
 새끼손가락 고리걸 - 고 목 목 약속해
 새끼손가락 고리걸 - 고 목 목 약속해